저소득층 아동의 학업, 정서 및 사회성 발달 : 부모보호와 자기보호 비교

Variations and Outcomes in the After-School Care of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옥 경 희*
Ok, Kyung Hee
김 미 해**
Kim, Mee Hae
천 희 영***
Chun, Hui Young

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differences in children's school achievement and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by type of after-school care: self-care and mother-care. It also examined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and ecological variables, including individu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by care methods. The data of 330 mother-care and 161 self-care children was provided by teachers, mothers, and the children themselves. The analyses of the data were conducted by t-test, correlation, and regression. Findings were that mother-care children had higher scores in grades, school adjustment and teacher relationship and lower depression and withdrawn behaviors than self-care children; after-school activities and peer support predicted the developmental outcomes of mother-care children; gender, autonomous ability, and behavior control predicted the development of self-care children.

Key Words

보호방법(care -method), 자기보호(self-care), 부모보호(mother-care)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 구미 제1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 고신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I. 서 론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부모의 적절한 보살핌의 결핍 역시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매우 불리한 환경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부모로부터 필요한 양육이나 보호를 제공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자기보호아동은 성인보호나 보육시설에서 돌보아지는 아동들과 비교했을 때 학업, 정서 그리고 사회성 영역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자기보호 아동들은 학업성취도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Vandell & Ramanan, 1991; Woods, 1972) 사회성 발달에서도 더 산만하고(Vandell & Ramanan, 1991), 반사회적 행동이나 문제행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Long & Long, 1982; Posner & Vandell, 1994; Vandell & Ramanan, 1991), 친구들과 더 많은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고(Vandell & Ramanan, 1991), 동료집단의 압력을 더 많이 받으며(Phillps, Voran, Kisker, & Howes, 1994; Steinberg, 1986; Stroman & Duff, 1982); 외로움을 많이 느끼거나(한명희, 1992), 우울해 한다고 한다(김주현, 1995). 물질적 자원의 부족과 부모양육의 결핍이라는 부정적 조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기보호아동들은 발달영역에서 또래들보다 더 불리한 환경에서 성장해야 하는 조건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인 저소득층 혹은 빈곤층에 놓여 있는 아동들이 자기보호를 할 때 그 영향력은 더욱 부정적이라고 한다(McLoyd, 1990; Galambos & Maggs, 1991; Steinberg, 1986; Vandell & Corasaniti, 1988; Vandell & Ramanan, 1991).

그러나 이와는 달리 자기보호 아동이 학업이나 지능에서(Galambos & Garbarino, 1983, 1984; Gold & Andres, 1978a, 1978b; Smith & Rotatori, 1994; Vandell & Corasaniti, 1988), 공격성이나 동료와의 관계에서(Gold & Andres, 1978a, 1978b; Rodman, Pratto, & Nelson, 1985; Smith & Rotatori, 1994; Steinberg, 1986; Vandell & Corasaniti, 1988),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에서(Galambos & Garbarino, 1984) 다른 보호 하에 있는 또래들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보호형태에 따른 일관성 없는 결과는 보호방법이 행사하는 영향력을 다른 특성들이 감소 혹은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Cain & Hofferth, 1989; McLoyd, 1990; Galambos & Maggs, 1991; Posner & Vandell, 1994; Steinberg, 1986; Vandell & Corasaniti,1988; Vandell & Ramanan, 1991; Woods, 1972).

우선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보호형태의 영향력에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가정자녀들의 발달과 보호형태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겠다. 보호방법과 함께 아동 발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지적된 변인들을 아동, 가족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변인들로 분류하여 선행연구를 요약, 정리해보기로 하겠다.

보호방법에 따라서 아동발달에 차이가 있는지에 관심을 가진 연구들은 아동관련 변인 중 아동의 성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자기보호 상황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혼자 있는 시간에 심리적으로 더 불안을 느끼거나 두려워하고 (Galambos & Garbarino, 1984; Zill, 1983), 덜 자율적으로 행동한다고 알려졌다 (Hoffman, 1980). 성인의 통제하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문제행동을 더 일으키지만, 성인의 통제

를 받지 않는 자기보호일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더 문제행동을 일으킨다고 한다(Galambos & Maggs, 1991; Steinberg, 1986; Woods, 1972). 그러나 Vandell과 Ramanan(1991)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자기보호아동의 발달정도나 적응력에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성별보다는 오히려 아동의 연령이 자기보호의 영향력에 차이를 나타낸다고 일부 연구자들은 지적한다(Rodman & Pratto, 1987; Smith & Rotatori, 1994; Steinberg, 1986). 자기보호 여부를 가릴 때 대상 연령의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Rodman et al., 1985) 일정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보호방법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가정을 포함한다고 하겠다.

아동의 개인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 외에도 아동의 심리적 성숙과 관련된 변인들 또한 보호방법의 영향력에 차이를 만든다고 보고된다. 아동이 혼자 있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위급한 상황에서 놓이게 될 때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변에 요청할 능력이 있는지와 더불어 스스로 숙제나 주어진 일들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통제나 제재 없이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는지 등과 같은 성숙정도를 고려하여 자기보호를 결정했을 때, 자기보호가 미치는 영향력은 적다고 한다(Cain & Hofferth, 1989; Galambos & Maggs, 1991; Koblinsky & Todd, 1989; Kraizer, Witte, Fryer & Miyoshi, 1990; Mauslin-Cole, 1991). 자녀가 자기보호를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의 습득 정도를 보여주는 자기보호 준비도는 아동 스스로 생활하면서 당면하게 되는 안전상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지적된다(이재연과 강성희, 1992; Kraizer et al., 1990; Lobb, 1993). 아동이 자신의 삶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절력은 충동 때문에 하고자 하는 행위를 참거나 하지 않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자기조절을 통하여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거나 법이나 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자기가 바라는 행동을 궁극적으로는 얻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아동의 조절력은 학업성적이나 사회성과는 정적 상관을 (Mischel, Shoda & Peake, 1988; Shoda, Mischel, & Peake, 1990), 사회적 문제행동과는 부적상관을(Caspi, Henry, McGee, Moffitt & Silva, 1995; Fox, 1989; Rothbart, Ahadi & Hershey, 1994) 보였다.

보호형태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들은 보호형태에 따라서 아동들의 방과후 활동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들이 관심을 보인 이유는 아동이 방과후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경험하는 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Bryant, 1985; Huston, Wright, Marquis, & Green, 1999; Huston, Wright, Rice, Kerkman & St. Peters, 1990; Larson & Richards, 1991; Pettit, Laird, Bates & Dodge, 1997; Posner & Vandell, 1999).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기보호아동들이 성인이나 보육시설의 보호를 받는 아동들보다 TV를 더 오래 시청하고 (Guerney, 1991; Posner &Vandell, 1994; Richards & Duckett, 1994), 학교과제에 쏟는 시간이 적다고 한다(한명희, 1992).

방과후 자녀들의 보호방법을 살펴볼 때 자주 언급되는 변인은 어머니의 취업이다.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들로 하여금 자기보호를 선택하게 만드는 변인이기도 하지만(이옥, 1995;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90; Padilla & Landreth, 1989; Posner & Vandell, 1994),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므로 자녀발달에 부정적 결과를 나타낸다고 한다(Bohen & Viveros-Long, 1981; Moen, 1982). 그러나 보호방법의 영향력에 관심을 기울인 Steinberg(1986)는 자기보호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부정적 발달결과는 부모가 함께 지내는가 보다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자기보호아동의 발달이 부정적으로 나타났고(Vandell & Corasaniti, 1988), 부모가 정서적 지지를 보여주었을 때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문제행동을 일으키는데 완충적 역할도 담당한다고 보고한다(김선희 · 김경연, 1999; 이선경 · 이재연, 1998; McLoyd, 1990; Pettit, Bates, Dodge, & Meece, 1999). 자기보호 아동이 또래보다 학업성적이 낮고 동료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였으나 이들이 부모에게 받는 정서적 지지를 통제한 결과 부정적 발달 결과가 사라졌으며(Vandell & Ramanan, 1991), 편모가정의 자녀들 중 방과후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경우가 기관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들보다 더 부정적이었다는 결과들은(Vandell & Corasaniti, 1990; Vandell & Ramanan, 1991) 부모 없이 지내는 기간보다는 부모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하는가의 여부보다는 부모가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들의 발달이 부정적 결과를 보인다고 한다(Patterson & Stouthamer-Loeber, 1984; Pettit et. al., 1999; Steinberg, 1986).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이 부모의 취업유무에 의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모의 감독 정도가 낮은 집단의 아동들이 학교성적과 사회적 행동에서 부정적이었다는 연구결과는(Crouter MacDermid, McHale, & Perry-Jenkins, 1990)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이 중요함을 지지하고 있다. 부모의 적절한 감독이 주어지지 않는 자녀들은 또래집단의 압력에 쉽게 노출되거나 또래압력을 더 많이 받음으로써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거나 그 희생자가 된다고 한다(Phillps, Voran, Kisker, & Howes, 1994; Steinberg, 1986; Stroman & Duff, 1982). 자녀와 함께 있지 않는다 해도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파악하고 있을 때 적절한 개입이 가능하고 긍정적으로 사회화시킬 수 있으며(Pettit et al., 1999), 동료들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고(Steinberg, 1986), 반사회적 행동에 참여하는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Galambos & Maggs, 1991; Patterson & Stouthamer-Loeber, 1984; Steinberg, 1986). 그러나 지나친 감독이나 통제는 자녀의 또래간 상호작용에 제약을 가져오고(Long & Long, 1982),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뺏으며 자녀에게 심리적 고립감을 경험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도 지적한다(Vandell & Ramanan, 1991).

부모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감 역시 저소득층 아동의 발달을 다룰 때 고려해야 할 변인으로 꼽힌다.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들은 경제적 압박감 때문에 부모로서의 역할에 심리적 부담감을 더 심하게 느끼고, 부모의 심리적 부담감은 자녀를 돌보는 능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필요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한다(McLoyd, 1990; Vandell & Ramanan, 1991). 객관적 변인으로만 가족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기존의 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심리적 요인들을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Alvarez, 1985).

아동과 가족 관련변인과 더불어 저소득층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고려해야 할 영역 중의 하나는 아동과 가족이 놓여있는 환경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자기보호가 아동의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보호와 성인보호에 따른 차이를 비교했을 때 발달영역에서 차이가 없다는 비일관적인 결과는 연구대상의 거주지역에 의해서 나타나는 차이라고 Galambos와 Garbarino(1984)는 주장하고 있다.

아동이 자라는 환경이 비교적 안전한지의 여부, 범죄 발생 가능성 등은 자기보호를 하는 아동들의 발달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이라고 한다(Cole & Rodman, 1987; Galambos & Garbarino, 1983, 1984; Long & Long, 1982; Robison, Rowland & Coleman, 1986; Vandell & Ramanan, 1991). 지역사회의 안전성에는 실제 환경의 안전 여부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환경을 어느 정도 자녀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부모가 지각하는 환경의 안전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ichters & Martinez, 1993 Pettit et al., 1999에서 재인용). 열악한 환경에 대해 염려를 많이 하는 어머니들은 자기보호를 하는 아동들을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방해받고 집에서 TV를 더 많이 시청하게 하는 등 아동의 활동을 제약하여 발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Rubin, 1983, Galambos & Garbarino, 1984에서 재인용).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안전성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지원은 아동발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 나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기보호와 성인보호 아동의 비교연구에서는 오히려 저소득층 아동들에게서는 보호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고 한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한집에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웃의 비슷한 환경을 가진 또래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기회가 많아 부모의 부재가 하층의 자기보호 아동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구은미, 1989).

Cole과 Rodman(1987)은 안정성(stability)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적 특성이 자기보호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환경에서 제공되는 지원은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 돌보기나 자녀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완충적인 역할을 하고, 나아가 부모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부모역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Crockenberg, 1988).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을 제공해 주는 사람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 그리고 구체적인 도움과 지원을 제공받는 정도에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적 안녕감에 차이를 만든다고 한다(Belle, 1985).

이상에서 보호방법과 그와 관련된 아동, 가족 및 환경 변인들이 아동발달에 나타내는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구미 저소득층 자기보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방법에 따른 발달영역의 차이를 살펴보려 시도한 연구들도 있지만 다루는 변인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에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한계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방법에 따라서 아동의 학업과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개인, 가족, 그리고 환경관련 변인이 이들의 발달에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밝히는데 주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150만원 이하를 으로 제한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기준을 이용하여(어주경, 1998) 보호형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아동발달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보호형태는 아동이 학교수업이나 학원 혹은 놀이 등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아무도 없거나 동생만 있는 경우를 자기보호로 부모님이 계신 경우를 부모보호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업, 정서 및 사

회성 발달은 방과후 보호방법(부모보호와 자기보호)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2. 보호방법에 따라서 아동, 가족 및 환경 변인들과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업, 정서 및 사회성 발달과의 관련정도는 어떠하며,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업,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예측에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그리고 구미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2개교의 2, 5학년 중 3개 학급과 남중학교와 여중학교 각 1개 학급을 선정하여 재학중인 학생과 그 부모 그리고 담임선생님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총 1690부의 자료 중 가족평균 월수입이 150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방과후 모든 일을 끝내고(학교수업이나 학원활동 등) 집에 돌아갔을 때 '아무도 없거나 동생만 있다'고 대답한 자기보호 아동 163명과 '부모님이 계시다'고 대답한 부모보호 아동 330명을 합한 493명만을 본 연구대상으로 한정시켜 이용하였다.

2. 연구도구

1) 아동의 발달: 학업, 정서 및 사회성 발달

(1) 학업

본 연구에서 아동의 학업 적응은 아동의 성적과 학교생활적응 그리고 학업성취동기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성적은 1학기 기말고사 성적중 국어와 수학점수를 반별로 T점수로 환산한 후 두 과목의 점수를 합하여 이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은 학교적응행동의 측정을 위해 개발된 장영애(1986)의 사회정서적 발달 평정척도를 참조하여 8문항을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식 척도로 이루어졌다. 학업성취동기는 노명희와 이숙(1991)이 제작한 성취동기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5단계 척도 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2) 정서 발달

아동의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김선희와 김경연(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참조하여 제작하였다. 부정적 정서는 불안과 우울 그리고 긍정적 정서는 즐거움을 측정하도록 문항이 이루어져 있다. 각 도구는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정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사회성 발달

아동의 사회성 발달은 긍정적 사회행동은 김경회(1998)가 사용한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에서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와의 관계'를 구성하는 문항들 중 각 4개의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부정적 사회행동의 측정을 위해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김선희와 김경연, 1998)에서 공격성, 산만 그리고 위축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골라서 수정하여 제작하였다. 부정적 사회행동을 나타내는 세 영역 모두 각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식 척도로 만들어졌다.

2) 아동 개인적 변인: 사회심리적 성숙도와 방과후 활동

(1) 사회심리적 성숙도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호 준비도, 독립심, 통제력 그리고 조절력을 이용하여 아동의 사회심리적 성숙정도를 살펴보았다.

자기보호준비도는 아동이 혼자 있을 때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생활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독립심은 아동이 성인의 보호 없이 혼자 일상생활에서 요구하는 과업들 즉 숙제를 한다거나 준비물을 챙기는 등의 행동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를 묻는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통제력은 아동들이 충동적, 폭력적 그리고 분노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조절력은 아동들이 상황에 계획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통제력과 조절력은 각 4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은 모두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2) 방과후 활동

아동들의 방과후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Richards와 Duckett(1994), Posner와 Vandell (1994), 그리고 김선희(1996)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총 12개의 활동범주를 선택하였고, 각 활동범주에 대해 아동들은 1점 '전혀 하지 않는다'에서 5점 '항상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하도록 되어있다.

12개 영역의 활동을 3개의 활동을 한 분야로 묶어서 4범주로 나누어 각 범주의 총점을 방과후 활동 참여정도로 이용하였. 4개의 범주는 공부하기(공부하기, 독서하기, 학원가기), 집안에서 놀기(TV보기, 게임하기, 집안에서 놀기), 일하기(집안일하기,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애완동물 돌보기), 그리고 집밖에서 놀기(집밖에서 놀기, 친구집 놀러가기, 오락실이나 만화가게 가기)이다.

3) 가족관련 변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감독 및 경제적 부담감

(1)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행동의 두 가지 특성 즉 정서적 지지와 행동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조사하였다.

정서적 지지 :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이선경과 이재연(98)이 사용했던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의 '온정-수용' 요인의 문항들 중에서 선정하였다.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표현, 온정적 태도, 수용, 존중, 이해, 관심과 경험의 공유, 대화와 설명, 지도의 합리성 등의 행동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를 측정한다고 생각되는 13개 문항 중 8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행동통제 :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는 Steinberg와 그의 동료들(1989)이 사용했던 연구도구를 기초로 그 내용은 우리 나라 초등학교 아동들의 행동 즉 밤 귀가시간, 용돈의 소비, 여가활동, 학교숙제의 마무리 등과 같은 행동들에 대해서 어머니가 아동에게 어떻게 행동하기를 지시하는 정도를 묻는다. 역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졌다.

(2) 감독

어머니가 아동의 일상생활에, 예를 들면 숙제가 있는지 혹은 용돈을 어디에 쓰는지와 같은,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를 묻는다. 모두 1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3) 경제적 부담감

어머니들은 지난 6개월 동안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공과금을 지불하거나 돈을 빌린 적이 있는지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8문항에 답하도록 되어 있다.

4) 환경변인 : 안전성과 안정성 및 사회적 지원

(1) 환경의 안전성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현재 살고있는 지역사회가 아동을 양육하는 환경으로써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3문항을 이용하여 어머니가 지각하는 주거안전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측정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로 집계된 '99년도 5대 범죄발생 건수를 이용하여 합계해서 범죄율을 계산하였다.

(2) 환경의 안정성

환경의 안정성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있는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양육지원망

어머니의 양육 지원망을 측정하기 위하여 현재 어머니께서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모두 몇 분이나 되는지를 물어보았다.

(4) 사회적 지원

아동의 사회적 지원은 아동이 교우와 교사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를 묻는 5문항으로 각각 이루어졌다. 아동들이 교우와 교사로부터 주어지는 지원정도에 대해서 지각하는 정도를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영역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연구도구의 문항과 대상자 그리고 신뢰도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도구의 종류와 도구의 신뢰도 (N = 493)

영 역		문항	응답자	신뢰도	영 역		문항	응답자	신뢰도
학업 성취도	학교생활적응	8	교사	.6456	사회 심리적 성숙도	자기보호 준비도	7	아동	.6529
	학업성취동기	6	아동	.6300		독립심	4	아동	.6806
정서	불안	4	아동	.7034		통제력	4	아동	.6814
	우울	4	아동	.6642		조절력	4	아동	.6735
	즐거움	4	아동	.8215	가족	경제적 부담감	8	어머니	.8699
사회성	교우관계	4	교사	.9185		통제	8	아동	.7425
	교사관계	4	교사	.8853		감독	10	어머니	.8373
	공격성	4	교사	.9003		정서적 지지	8	아동	.8469
	산만	4	교사	.9451		부모지지	5	아동	.8590
	위축	4	교사	.9530	환경	주거 안전도	3	어머니	.6715
						또래지지	5	아동	.8317
						교사지지	5	아동	.8588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착수하기 전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00년 5월 10일부터 6월 2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담임선생님의 소개를 받아 각

각 1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54부의 설문지 중 한 학생에 대하여 (학생 - 어머니 - 교사) 한 조를 이루는 51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설문지를 수정한 후, 2000년 7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광주, 구미 그리고 부산에서 본 조사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본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통계방법과 절차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신뢰도 계수 α를 산출하였다. 보호방법에 따라 아동발달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t 검증을 이용하였다. 다음으로는 부모보호 330명과 자기보호아동 163명을 분리시켜서 이들의 발달영역과 다양한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관련을 보이는 변인들만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들의 영향력 정도를 살펴보았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보호방법에 따른 아동의 성적, 정서 및 사회성 발달

보호방법에 따라서 아동의 학업과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영역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학업영역에서는 성적과 학교생활적응이 보호방법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기보호 아동들이 부모보호 아동들보다 성적과 학교생활적응 점수가 낮았다. 불안, 우울 그리고 즐거움으로 측정한 정서영역에서는 우울만이 보호방법에 의해서 차이가 나타난 영역이었다. 자기보호 아동들이 부모보호 아동들보다 더 우울한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방과후 보호방법에 따른 아동발달 평균과 표준편차 (N=493)

아동의 발달 영역		부모보호		자기보호		t 값
		M	SD	M	SD	
학업	성적	96.70	17.75	92.90	18.53	-2.164*
	학교생활적응	30.29	5.84	28.86	6.49	-2.458**
	학업성취동기	23.42	4.00	23.23	3.73	-.483
정서	불안	11.34	3.97	11.55	4.44	.519
	우울	8.34	3.80	9.28	3.91	2.476**
	즐거움	15.87	3.89	15.55	3.72	-.863
사회성	교우관계	14.13	3.59	13.90	3.57	-.652
	교사관계	14.85	3.59	13.64	3.78	-3.486***
	공격성	7.31	3.44	7.42	3.82	.310
	산만	8.06	3.94	8.36	4.05	.777
	위축	11.29	4.54	12.19	4.52	2.051*

*p<.05 **p<.01 ***p<.001

사회성 영역에서 보호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난 영역은 교사와의 관계와 위축행동으로 부모보호 아동들이 자기보호아동들보다 교사와 더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보호 아동들은 부모보호 아동들보다 더 위축된 행동을 하는 것으로 교사들은 보고하고 있다. 교우관계와 공격성 그리고 산만한 행동에서는 보호방법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아동발달과 아동, 가족 및 환경변인

1)부모보호 아동의 발달

<표 3>에는 부모보호를 받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업, 정서 및 사회성 발달과 여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가, <표 4>에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변인을 예측변인으로 이용하여 발달의 각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보여주는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3> 저소득층 부모보호 아동의 발달과 각 영역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N=330)

발달영역 / 각 영역 변인들	학업			정서			사회성				
	성적	적응	동기	불안	우울	즐거움	교우관계	교사관계	공격	산만	위축
성 별	.179**	.279	.044	.063	-.011	.120*	-.015	.084	-.235**	-.320**	.022
학 년	-.085	-.088	-.237**	-.036	-.018	-.100	-.099	-.175**	-.184**	-.012	.042
준비도	.030	.135*	.244**	-.084	-.124*	.137*	.179	.105	-.023	-.067	-.183**
독립심	.207**	.289**	.269**	-.012	-.150**	.233**	.194	.286**	-.162**	-.251**	-.161**
통제력	.000	.011	.261**	.008	.047	-.037	.026	.039	-.097	-.015	-.005
조절력	.118*	.207**	.366**	-.020	-.075	.199**	.149**	.221**	-.017	-.180**	-.042
공부하기	-.378**	.262**	.348**	-.020	-.056	.188**	.188**	.132*	-.070	-.228	-.099
집안놀기	-.015	.037	.006	-.037	-.069	-.027	.129*	.049	.003	.014	.006
일하기	-.112	-.093	.107	.115*	.160**	-.067	-.049	-.012	.112*	.088	.027
집밖놀기	-.228**	-.183**	.061	-.089	-.050	-.016	-.068	-.049	.282**	.276**	-.037
모취업	-.050	.037	.068	-.046	.075	.045	.092	.090	.106	.019	-.026
모지지	.006	.211**	354**	-.095	-.201**	.365**	.182**	.200**	.014	-.110	-.106
모통제	-.028	.038	.316**	.091	-.048	.106	.093	.202**	.163**	.068	-.063
모감독	.245**	.173**	.182	.021	-.104	.162**	.165**	.193**	-.011	-.089	-.144*
경제부담	-.110	-.030	.032	.061	.052	-.077	-.033	.065	.020	.079	.015
주거안전	.039	-.056	.091	-.045	.044	-.029	-.062	-.059	.038	.062	.035
범죄율	.006	.013	.014	-.013	-.083	.095	-.050	-.118*	-.154**	-.041	.007
주거안정	-.007	-.011	-.011	-.001	-.057	.013	-.059	.017	.101	.037	.035
양육지원	-.108	-.088	-.052	.020	.103	-.069	-.039	.003	.059	.166**	.087
또래지지	.133*	.296**	.329**	-.111*	-.328**	.474**	.321**	.226**	-.011	-.163**	-.210**
교사지지	.084	.165**	.302**	-.128*	-.170**	.289	.169**	.220**	.022	-.103	-.120*

* $p < .05$, ** $p < .01$

<표 4> 관련변인을 이용한 저소득층 부모보호아동의 발달영역 회귀분석결과

발달영역 / 예측변인	학업			정서			사회성				
	성적	적응	동기	불안	우울	즐거움	교우관계	교사관계	공격	산만	위축
성별									-.138*	-.228**	
학년			-.353**					-.196**	-.234**		
준비도			.255**								-.134*
독립심	.135*	.155**						.241**			
공부하기	.332**	.211**	.167**				.165**			-.174**	
집안놀기							.173**				
일하기					.199**						
집밖놀기	-.177**	-.212**							.232**	.229**	
모지지			.136*			.235**					
모통제								.128*			
모감독	.146**						.146**				-.143*
또래지지		.171**	.163**		-.352**	.385**	.264**	.129*			-.152**
교사지지				-.150**							
R^2	.171	.185	.295	.019	.139	.277	.160	.159	.130	.233	.068

* $p < .05$, ** $p < .01$

아동의 성별과 학년이 발달영역과 갖는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별은 긍정적인 영역에서는 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영역에서는 부적인 상관을 보여서 여학생들이 발달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심리적 성숙 정도에서 독립심이 다양한 영역과 상관을 많이 보였으나 통제력은 학업성취동기를 제외하고서 그 어느 영역과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활동 중 집안에서 놀기나 일하기는 발달영역들과 많은 상관을 보이지는 않았다. 공부하기와 집밖에서 놀기는 학업영역과 상관정도가 높았고 일하기는 부정적 정서와 상관을 보였다. 가족관련 변인들 중 어머니의 취업여부나 어머니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감은 발달영역들과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지지나 감독은 긍정적인 발달영역과는 정적 그리고 부정적인 발달영역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환경관련 변인들은 또래와 교사의 지지를 제외하고서는 발달영역과는 별로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변인들이 저소득층 부모보호아동들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학업영역에서의 적응에는 공부하기가 공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성적에는 공부하기가 제일 영향력의 정도가 큰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집밖에서 놀기로 집밖에서의 놀이에 많이 참여할 때 성적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감독이나 아동의 독립심이 높을 때 성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에는 집밖에서 많이 놀수록 적응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래로부터의 지지가 많거나 독립적일 때 학교생활에서 더 잘 지낸다고 한다. 학업성취동기는 학년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준비도가 높거나 공부를 많이 할 때, 또래나 어머니로부터의 지지가 많을 때 동기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발달을 예측하는 변인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불안은 교사의 지지가 낮을 때 높았으며, 우울은 또래의 지지가 낮거나 집안일을 많이 할 때 높았고, 또래나 어머니로부터의 지지가 많을 때 저소득층 부모보호 아동들은 더 즐거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성 영역의 발달은 영역별로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교우와의 관계에는 또래로부터의 지지가 제일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집안에서 놀기, 공부하기 그리고 어머니의 감독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이이었다. 교사와의 관계는 교사로부터의 지지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이 아니었고 아동의 독립심과 학년 그리고 또래와 어머니의 지지 정도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과 산만한 행동에는 성별이나 집밖에서 놀기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외에도 공격적 행동에는 학년이 산만한 행동에는 공부하기가 예측에 유용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부모보호를 받는 아동들은 또래의 지지, 어머니의 감독, 그리고 본인의 준비도가 낮을 때 더 위축된 행동을 한다고 본 연구결과는 밝히고 있다.

2) 자기보호 아동의 발달

저소득층 자기보호아동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을 살펴볼 수 있는 분석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의 개인적 특성인 성별은 부정적 사회성 영역인 공격적 혹은 산만한 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부정적 정서 영역인 불안과 우울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서 부정적 사회성 발달에서는 남학생들이 부정적 정서 발달에서는 여학생들이 점수가 낮게 보이고 있음을 분석결과 알 수 있다. 학업성취동기나 즐거움 그리고 공격과 산만은 학년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서 학년이 높을 때 학업성취동기나 즐거움이 낮고 공격과 산만한 행동도 덜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심리적 성숙정도 중에서 준비도와 통제력이 상관이 있다고 나타난 발달영역은 그 수가 매우 적었다. 조절력은 학업을 구성하는 영역들이나 즐거움 그리고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와 같은 긍정적 발달영역과는 정적 상관을, 산만한 행동이나 위축된 행동과 같은 부정적 발달영역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독립심도 조절력이 발달영역과 보이는 상관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우울이나 공격적 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결과에서 차이를 보였다. 방과후 활동 중 집안에서 놀기와 집밖에서 노는 행동은 발달영역들과 별로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하기는 학업을 구성하는 영역들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즐거움과 교사와의 관계를 제외한 다른 영역과는 별 상관이 없었다. 일하기는 성적과는 부적 상관을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불안과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저소득층 자기보호 아동들은 방과후 일을 많이 할 때 성적이 낮거나 불안이나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는 해석될 수 있겠다. 가족관련 변인 중 아동의 발달과 상관이 있다고 나타난 변인은 그리 많지 않았다. 모취업 여부는 그 어느 발달영역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지지나 통제는 학업성취동기와 즐거움과만 정적상관을 보였고 어머니의 감독은 학업성취동기와만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제적 부담은 우울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환경관련 변인에서도 발달영역과 상관을 보인 변인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주거안전도, 주거안정도, 어머니의 양육지원망 그리고 교사로부터의 지지는 저소득층 자기보호아동 발달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 범죄율은 우울과 정적 상관을 공격적 행동이나 위축된 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또래로부터의 지지는 학교생활적응, 즐거움, 교우와 교사와의 관계와 정적 상관을 그리고 공격적 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유의한 상관을

<표 5> 저소득층 자기보호 아동의 발달과 각 영역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N=161)

발달영역 / 각 영역 변인들	학업			정서			사회성				
	성적	적응	동기	불안	우울	즐거움	교우관계	교사관계	공격	산만	위축
성 별	.038	.246**	-.013	.252	.193*	-.010	-.012	.110	-.309	-.263**	.053
학 년	.009	.012	-.195*	-.108	-.094	-.186*	.054	-.068	-.264	-.175*	-.043
준비도	.096	.114	.191*	-.002	.017	.158	.109	.059	-.093	-.101	-.076
독립심	.298**	.272**	.411**	-.039	-.174*	.244**	.189*	.231**	-.192**	-.293**	-.116
통제력	.093	.020	.292**	-.023	-.101	.253**	.081	.149	-.098	-.076	-.131
조절력	.206**	.234**	.505**	-.039	-.038	.289**	.222**	.261**	-.132**	-.174	-.168*
공부하기	.249**	.171*	.403**	.035	-.044	.328**	.124	.201*	-.091*	-.100	-.128
집안놀기	-.089	.044	-.009	.119	.156	.059	-.094	.021	-.054	.005	.002
일하기	-.170*	-.003	.122	.178*	.234**	.159	-.070	.005	-.025	.001	.079
집밖놀기	-.096	-.134	-.069	-.071	.104	.006	-.079	-.135	.217**	.165**	-.016
모취업	.071	-.118	-.046	.002	-.058	-.039	-.016	.001	.137	.124	.005
모지지	-.047	.066	.348**	-.061	-.149	.429**	.096	.150	-.003	.000	-.073
모통제	.070	.032	.411**	.147	.000	.237**	-.001	.059	.099	.097	-.104
모감독	.121	.059	.281**	.085	.018	-.133	.000	.020	.030	-.020	-.069
경제부담	.112	.056	.055	-.005	-.177*	.004	-.034	.049	-.005	.021	.050
주거안전	.030	-.074	-.046	-.113	-.076	-.040	.074	-.021	-.005	-.032	.045
범죄율	.037	.074	.059	.112	.215**	-.149	.132	-.018	-.260	-.085**	-.155
주거안정	.036	.029	.035	-.035	-.112	-.015	.051	.068	.028	.050	.097
양육지원	.150	.145	.104	-.127	-.077	.013	.143	.157	-.125	-.156	-.161
또래지지	.071	.209**	.155	-.093	-.129	.354**	.225**	.096*	-.176*	-.176	-.143
교사지지	.080	.081	.144	-.134	.029	.119	.058	.094	-.047	-.040	-.092

* $p < .05$, ** $p < .01$

보이는 변인들만을 이용하여 아동들의 발달을 예측한 회귀분석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저소득층 자기보호아동의 학업을 예측하는데 공통적으로 포함된 영역은 아동의 독립심이었다. 공부하기는 성적을 예측하는 데만 유의한 변인이었고 일을 많이 할수록 성적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은 독립심 외에는 성별만이 유의한 예측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동기에서 조절력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통제와 감독 그리고 독립심의 순으로 이어졌다. 불안과 우울은 방과후 일을 많이 할수록 더 불안하고 우울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들이 더 불안하고 우울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울을 예측하는데는 아동의 독립심과 어머니의 경제적 부담이 유의한 변인이었는데 독립심이 적을 때 그리고 부담감이 적을 때 자기보호아동들은 더 우울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성 발달을 예측하는데 교우와 교사와의 관계에는 아동의 조절력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교우와의 관계는 조절력 외에도 또래로부터의 지지가 포함되었으나 교사와의 관계는 조절력만이 유일한 예측변인이었다. 공격적 행동이나 산만한 행동에는 성별과 학년이 함께 포함되었는데 산만의 경우는 독립심이 첨가되어

나타났다. 독립심이 높을 때 자기보호아동들은 더 산만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본 결과를 해석할 수 있겠다. 아동의 위축행동을 예측하는데는 조절력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절력이 낮을수록 아동은 더 위축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미만인 가정의 초등학교 2, 5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부모보호와 자기보호를 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호방법에 따라서 학업, 정서 그리고 사회성 발달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보호방법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아동발달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 변인들과 부모보호와 자기보호 아동의 발달영역 사이에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변인들을 이용하여 각 발달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자면 방과후 보호방법은 저소득층 아동들의 성적과 학교생활적응, 우울, 교사와의 관계와 위축된 행동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기보호 아동들은 부모보호 아동들보다 성적과 학교생활적응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에서 더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우울과 위축된 행동에서는 점수가 더 높았다. 집안에서 놀기, 어머니의 취업이나 주거안전도와 안정도는 두 집단의 아동발달과 전혀 관계가 없는 변인이었고, 부모보호 아동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경제적 부담감이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양육지원망이 상관이 없는 변인으로 추가되었다.

<표 6> 관련 변인을 이용한 저소득층 자기보호아동의 발달영역 회귀분석결과(표준화된 회귀계수)

발달영역 / 예측변인	학업			정서			사회성				
	성적	적응	동기	불안	우울	즐거움	교우관계	교사관계	공격	산만	위축
성별		.206**			.275**				-.240**	-.216**	
학년									-.287**	-.151*	
독립	.272**	.224**	.179*		-.279**					.253**	
조절			.359**				.191**	.247**			-.168*
공부	.190*					.241**					
일	-.266**			.178*	.282**						
지지						.250**					
통제			.252**								
감독			.193*								
부담감					-.215**						
또래						.233**	.173*				
R^2	.163	.101	.423	.025	.203	.254	.071	.055	.148	.155	.022

* $p < .05$, ** $p < .01$

부모보호 아동의 발달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는 공부하기와 집밖에서 놀기 그리고 또래의 지지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서 영향력의 정도가 큰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자기보호 아동발달에는 아동의 성별과 독립성 그리고 조절력에서 예측력이 큰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보호 아동에게는 스스로 행동을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요인인 반면, 부모보호 아동에게는 자기의 생활을 적절히 관리하는가와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보호방법에 따른 저소득층 아동들의 발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선행연구들은 보호방법에 따라서 아동발달의 다양한 영역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부 영역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보호 아동들이 다른 보호를 받는 또래들보다 학업에서 낮은 성적을 보이고 (Vandell & Ramanan, 1991; Woods, 1972) 우울해 한다는 (김주헌, 1995) 결과를 지지하지만 동료관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Rodman et al., 1985; Smith & Rotatori, 1994; Steinberg, 1986; Vandell & Corasaniti, 1988) 결과 역시 지지하고 있다. 보호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다룬 연구들이 발달영역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측정도구나 발달영역 중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듯이 계층이나 문화적 배경과 같은 변인들이 보호방법보다는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수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본 연구 결과가 선행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우리 나라라는 환경적 맥락이나 저소득층이라는 한정된 집단이 안고 있는 특성이 반영된 현상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보호방법에 따른 발달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는 작업도 그 의의가 있으나 성별, 연령 혹은 사회경제적 변인들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그 차이를 살펴볼 때 보호방법과 아동발달간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보호방법이 성별에 따라 발달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직접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성별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보호방법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소득층 아동들에게서 보여지는 성별과 보호방법과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아동의 성별은 보호방법을 막론하고 학교생활적응, 공격 그리고 산만한 행동과 상관을 보였다. 더불어 부모보호를 하는 아동들의 즐거움 점수와 자기보호아동의 불안이나 우울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다양한 변인들을 모두 고려하여 저소득층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아동의 성별이 부모보호 아동과 자기보호 아동의 공격적 행동과 산만한 행동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변인이었으며 자기보호아동에게는 학교생활적응과 불안이나 우울을 예측하는데도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혼자 있는 것을 더 불안해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Galambos & Garbarino, 1984; Zill, 1983) 지지한다.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기보호를 하는 자녀들이 남아일 때보다 여아일 때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반면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에 부정적 발달을 보이는지를 설명해 주는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보고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성인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기보호 여아들일 경우 남아들보다 문제행동을 더 보인다는 선행연구[4] 결과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밝혀내었으나 성인의 통제정도나 연령과 같은 변인들이 성별과 상호작용하여 나타낼 수 있는 차이까지는 다루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부

분들이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일이다.

셋째, 아동의 심리적 성숙이 저소득층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호방법에 따라 나누어서 살펴본 본 연구결과, 독립심은 두 경우 모두의 발달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지만 부모보호 아동에게는 준비도가 자기보호 아동에게는 조절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자기보호아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기보호 준비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선행연구자들의 주장과는 (이재연 · 강성희, 1992; Kraizer et al., 1990; Lobb, 1993) 달리 자기보호아동의 발달에 준비도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는 밝히고 있다. 오히려 부모보호 아동의 학업성취동기나 위축된 행동에 준비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보호를 받는다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일들을 스스로 잘 할 수 있을 때 학업성취동기가 높고 위축된 행동을 덜 하게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아동의 조절력이 부모보호나 자기보호아동 모두에게서 학업성취를 나타내는 세 영역의 발달과 그리고 교우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모두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어서 조절력이 학업성적이나 사회성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하겠다 (Mischel et al., 1988; Shoda et al., 1990). 그러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부모보호 아동의 발달을 예측하는데 조절력은 포함되지 않은 반면, 자기보호아동의 발달 중 학업성취동기, 교우와 교사간의 관계 및 위축행동을 예측하는데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제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으로 밝혀진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스스로를 돌보는 자기보호아동에게 자신의 생활을 적절히 통제하는 능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립심의 경우에도 부모보호 아동보다는 자기보호 아동의 발달에 영향력의 정도가 더 크고 영역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더라도 자기보호 아동발달에는 심리적 성숙정도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방과후 활동과 저소득층 아동의 발달결과는 보호방법에 따라 차이 있게 나타났다. 부모보호 아동의 발달에서 위축된 행동을 제외한 모든 영역과 방과후 활동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보호 아동에게서는 집안에서 노는 행동이 발달과 관련이 없었고 다른 활동도 위축뿐 아니라 교우관계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발달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도 부모보호 아동의 경우 방과후 4개 활동이 영역에 따라 유의한 변인임이 밝혀졌으나 자기보호 아동에게는 공부하기와 일하기만이 유의한 변인이었다. 활동종류별로 살펴보더라도 공부하기가 자기보호 아동에게는 성적에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이었으나, 부모보호 아동에게는 성적뿐 아니라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동기, 또래와의 관계와 산만한 행동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집안 일하기는 부모보호 아동의 우울만을 예측하는데 포함되었으나, 자기보호 아동에게는 우울 뿐 아니라 성적과 불안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보호아동일 경우 집안일을 하는 것이 활동상의 제한으로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선행연구결과보다는 (Long & Long, 1982) 집안일을 하는 것이 아동들을 집안에 머물게 하여 외로움이나 두려움을 증폭시키거나 혹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힘에 겨운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겠다. 또한 자기보호 아동이 일을 많이 할 때 성적이 더 떨어진다는 본 연구결과는 집안 일에 소비하는 시간이 성적을 올리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부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 후속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추측은 검증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는다.

다섯째, 가족관련 변인 중 어머니의 취업은 별로 중요한 변인이 아니었으며 어머니의지지, 통제 그리고 감독이 비교적 강한 상관을 보였으나 자기보호 아동에게서는 그 영역이 학업성취동기와 즐거움에 한정되어 나타났다. 부모보호 아동 발달과는 어머니의 지지, 통제, 감독이 꽤 여러 영역에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보호형태와 상관없이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 때 자녀들은 더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통제와 감독은 학업성취동기에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이었다.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가 부모보호 아동의 학업성취동기, 즐거움, 교사와의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자기보호 아동에게 어머니의 지지나 감독이 더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Steinberg, 1986) 지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본 연구결과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하는 아동들에게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나 감독정도가 이들의 성적, 학업성취동기, 교우나 교사와의 관계, 위축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 함께 하고 있을 때 상호작용의 질이 중요하다는 기존의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감독이 별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의 부족이 어머니의 역할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지를 점검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보호방법에 따라 아동발달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중 일부가 환경을 구성하는 안전도와 안정도 및 사회적 관계망 때문이라고 선행연구에서는 지적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 환경이 비교적 안전한지의 여부, 범죄 발생 가능성 등이나 (Cole & Rodman, 1987; Galambos & Garbarino, 1982, 1983, 1984; Long & Long, 1983; Robison et al., 1986; Vandell & Ramanan, 1991) 자기보호 아동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안전도와 관련된 지역사회 범죄율만이 극히 제한된 발달영역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부모들이 지각하는 환경의 안전도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으나(Richters & Martinez, 1993 Pettit et al., 1999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그 어느 영역의 발달과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거지역의 안정성이나 어머니가 제공받는 양육지원망도 저소득층 아동 발달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구미사회에서는 거주지역의 위험성이 지역사회에 따라서 그 차이가 매우 심한데 비교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비교적 환경이 동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환경을 구성하는 변인 중 또래지지와 교사지지는 저소득층 아동의 발달과 비교적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부모보호 아동에게서 두드러졌다. 자기보호 아동의 발달과 교사의 지지는 관련이 없었고 또래지지는 학교생활 적응과 즐거움, 교우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래지지는 저소득층 아동의 즐거움과 교우와의 관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회귀분석결과 밝혀졌다. 부모보호 아동에게는 즐거움과 교우관계 외에도 학업,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나타내는 영역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과후 혼자 지내는 아동에게 보다 부모와 함께 지내는 아동의 발달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과후 보호방법에 따라서 가족관계 혹은 대인관계 의존도나 상호작용 기술과 같은 부분들이 차이를 보이는지 추후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남는다.

본 연구대상이 일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특정 연령만을 고려하였다는 부분은 본 연

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방과후 보호방법은 아동의 발달영역 모두에서 차이를 보이기보다는 일정 영역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러 영역의 변인들 또한 보호방법과 영역에 따라서 다양한 관계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방법과 아동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그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앞으로 저소득층이라는 가정환경과 보호방법이라는 환경적 특성이 아동발달에 나타내는 차이와 영향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해주는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구은미(1989). 자기보호 아동의 자아존중 감과 내외통제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회(1998).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선희(1996). 아동의 생활시간 구조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아동연구**, 5, 40-52

김선희 · 김경연(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55-165.

김주현(1995). 도시지역 「자기보호아동」 (Latchkey child)을 위한 방과후 탁아프로그램의 효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노명희 · 이숙(199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9(4), 181-206.

어주경(1994).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선경 · 이재연(1998).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의 이론적 과정모델. **아동학회지**, 19(2), 49-64.

이옥(1993). 도시지역 방과후 탁아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양옥승 (편), **탁아연구** II, pp. 7-32. 서울: 양서원.

이재연 · 강성희(1992). 방과후 성인의 보호없이 지내는 아동의 자기보호에 대한 준비도. **논문집(숙명여자대학교)**, 33, 313-323.

한국행동과학연구소(1990). 전국 탁아수요 및 부모의 요구조사 연구.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한명희(1992).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실태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lvarez, W, F. (1985). The meaning of maternal employment for mothers and their perceptions of their three-year-old children. *Child Development, 56,* 350-360

Belle, B. (1985). The neighborhood walk : Sources of support in middle childho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3, Serial No. 210)

Bohen, T. & Viveros-Long, A. M. (1981). *Balancing jobs and family life : Do flexible working schedules help?* Philadelphia : Temple University Press.

Bryant, B. (1985). The neighborhood walk : Sources of support in middle childho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3,* Serial No. 210)

Cain, V. S. & Hofferth, S. L. (1989). Parental choice of self-care for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65-77.

Caspi, A., Henry, B., McGee, R. O., Moffitt, T. E., & Silva, P. A. (1995). Temperamental origins of child and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From age three to age fifteen. *Child Development, 66*, 55-68.

Cole, C. & Rodman. H. (1987). When school-age children care for themselves: Issues for family life educators and parents. *Family Relations, 36*, 92-96.

Crockenberg, S. (1988)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In H. Fitzgerald, B lester, & M. Yogman (Eds), *Theory and Research in Behavioral Pediatrics* (Vol. 4, pp. 67-92). New York/London: Plenum.s

Crouter, A. C., MacDermid, S. M., McHale, S. M. & Perry-Jenkins, M. (1990). Parental monitoring and perceptions of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and conduct i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49-657.

Fox, N. A. (1989).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s of emotional reactivity during the first year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64-372.

Galambos, N. L. & Garbarino, J. (1983). Identifying the missing links in the study of latchkey children. *Children Today,* 12(4), 2-4, 40-41.

Galambos, N. L., & Garbarino, J. (1984). Adjustment of unsupervised children in a rural setting.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6*(2), 227-231.

Galambos, N. L. & Maggs, J. (1991). Children in self-care; figures, facts, and fiction. In J. V. Lerner & N. L. Galambos (Eds.), *Employ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pp. 131-157). New York: Garland.

Gold, D. & Andres, D. (1978a). Comparisons of adolescent children with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Merrill-Palmer Quarterly, 24*, 243-253.

Gold, D. & Andres, D. (1978b). Developmental comparisons between 10-year-old children with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Child Development, 49*, 75-84.

Guerney, L. (1991). A survey of self-supports and social supports of self-care children. *Elementary School Guidance and Counseling, 25*(4), 243-254.

Hoffman, L. W. (1980). The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the academic attitudes and performance of school-aged children. *School Psychology Review, 9*, 319-335.

Huston, A. C., Wright, J. C., Marquis, J. & Green, S. B. (1999). How young children spend their time: Television and other activities. *Child Development, 35*, 912-925.

Huston, A. C., Wright, J. C., Rice, M. L., Kerkman, D. & St. Peters, M. (1990). The development of television viewing patterns in early childhood: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409-420.

Koblinsky, S. A. & Todd, C. M. (1989). Teaching self-care skills to latchkey children: A review of research. *Family Relations, 38*, 431-435.

Kraizer, S., Witte, S., Fryer, G. E. Jr., & Miyoshi, T. (1990). Children in self-care: A new perspective. *Child Welfare, 69*, 571-581.

Larson, R. & Richards, M. H. (1991). Daily companionship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Changing developmental contexts. *Child Development, 62*, 284-300.

Lobb, N. (1993). Home alone and doing fine: A guide for young people in self-care. Portland, ME: J. Weston Walch.

Long, T. J. & Long, L. (1982). Latchkey children: The child's view of self-care. Arlington, VA: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Documents Reproduction service.

Mauslin-Cole, C. (1991). Is your child ready to be home alone? *PTA Today. 17*(2), 15.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Mischel, W., Shoda, Y. & Peake, P. K. (1988). The nature of adolescent competencies predicted by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687-696.

Moen, P. (1982). The two-provider family: Problems and potentials In M. E. Lamb(Ed.), Nontraditional familie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pp. 13-44). Hillsdale, N. J.: Lawrence:Erlbaum Associates.

Padilla, M. L. & Landreth, G. L. (1989). Latchkey children: A review of the literature. *Child Welfare, 68*, 445-454.

Patterson, G. R. & Stouthamer-Loeber, M. (1984). The correlation of family management practices and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55*, 1299-1307.

Pettit, G. S., Bates, J. E., Dodge, K. A., Meece, D. W. (1999). The impact bof after-school peer contact on early adolesent externalizing problems. *Child Deveiopment, 70(3)*, 768-778.

Pettit, G. S., Laird, R. D., Bates, J. E. & Dodge, K. A. (1997). Patterns of after-school care in middle childhood: Risk factors and developmental outcomes. *Merrill-Palmer Quarterly, 43*, 515-538.

Phillips, D. A., Voran, M. K., Kisker, E. & Howes, C. (1994). Child care for children in poverty. *Child Development, 65*, 472-492.

Posner, J. K. & Vandell, D. L. (1994). Low-income children's after school care: Are there beneficial effects of after-school programs? *Child Development, 65*, 440-456.

Richards, M. H. & Duckett, E. (1994).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employment ito early adolescent daily experience with and without parents. *Child Development, 65*, 225-236.

Robison, B. E., Rowland, B. H. & Coleman, M. (1986). Taking action for latchkey children and their families. *Family Relations, 35*, 473-478.

Rodman, H., Pratto, D. J. & Nelson, R. S. (1985). Child are arrangement and children's functioning: A comparison of self-care and adult-car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1*(3), 413-418.

Rodman, H. & Pratto, D. J. (1987). Child's age and mother's employment in relation to greater use of self-care arrangements for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573-578.

Rothbart, M. K., Ahadi, S. A. & Hershey, K. L. (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0,* 21-39.

Shoda, Y., Mischel, W. & Peake, P. K. (1990). Predicting adolescent cognitive and self-regulatory competencies from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Identifying diagnostic condi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948-967.

Smith, T. & Rotatori, A. (1994). Relation of adult supervision to acade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fifth and sixth graders. *Psychological Reports, 75,* 1261-1262.

Steinberg, L. (1986). Latchkey children and susceptibility to peer pressure: An ecologic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433-439.

Steinberg, L., Elmen, J. D. & Mounts, N. S. (1989). Authoritative parenting, psychological maturity, and academic success amo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0,* 1424-1436.

Stroman, S. & Duff, R. (1982). The latchkey child: Whose responsibility? *Childhood Education, 59(2),* 76-79.

Vandell, D. L. & Corasaniti, M. A. (1988). The relations between third graders' after-school care and social academic and emotion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59,* 868-875.

Vandell, D. L. & Ramanan, J. (1991). Children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Choices in after-school care and child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637-643.

Woods, M. B. (1972). The unsupervised child of the working mother. *Developmental Psychology, 6,* 14-25.

Zill, N. (1983). *American children* : Happy, Healthy, and Insecure, New York : Doubleday/Anchor Press.